지역 메아리

흙집 살던 완주 구이면 김씨 가족 포스코 해피 스틸하우스 지원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흙집에서 생활하던 5명의 가족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됐다.

완주군은 민간기업 포스코 사회공헌사업 '해피 스틸하우스'를 통해 관내 김태형(49)씨 가족이 주택을 지원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이면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후원기업 포스코, 민간구호단체 기아대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형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을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에 주택지원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다"며 "열심히 살고 싶은 의욕이 더 생긴다"며 자활의지를 다졌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림프모구 백혈병 어린이에 아기사랑 후원금 전달

김제시 보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의 후원으로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백군)에게 사랑과 용기를 북돋는 의미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인구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아가사랑 후원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후원대상자 백군은 선천적으로 림프모구 백혈병을 앓고 있는 환아로 지속적으로 치료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전달식은 김제시보건소가 후원아동을 발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추천해 성사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2일

김제시립합창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6회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가요' 공연을 펼친다.

이번 연주회는 김효성 지휘자의 지휘로 감미롭고 달콤하며 흥겨운 무대를 준비했다.

프로그램으로는 혼성합창곡 사계절을 주제로 한 꽃구름속에, 여름냇가, 그대 있는 곳으로, 오솔길 흰눈 숲 등이며, 여성합창은 바람이 분다, SING sing sing 등이고 흥겨운 우리 민요 합창은 도라지타령, 군밤타령, 까투리타령 등이며 마지막 무대는 혼성합창을 위한 뮤지컬 합창 우리함께 가요로 사랑이 가득 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 무대는 국악인 오정해씨가 출연 배 띄워라, 홀로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테너 이원용이 출연해 내맘의 강물 등으로 김제시립합창단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무대를 마련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KTX 김제 혁신역 신설을"

김제시의회 건의안 채택…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도

김제시의회는 지난 3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과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의 심각성과 전북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KTX 김제 혁신역' 신설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두 안건을 채택했다.

먼저 임영택 의원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제도는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1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2012년부터 정부는 전북에 쌀 생산량(전국 3위)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불합리하게 배정(전국 5위)하고 있어 전북 농민들의 피해가 커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성주 의원은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에서 "낙후된 전북도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140여만명이 거주하는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5개시·군을 공동경제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5개 시군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줄 유일한 대안이자 구심점은 KTX 혁신역사 신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성주 의원은 "KTX 혁신역사 신설은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메카 구성과 금융허브 조성, 관광객 유치 및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계 발전 등 전북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주 등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그리고 새만금과 30분내 이동이 가능한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김제지역에 KTX 혁신역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과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90일이상 해외체류자 거주불명등록 해소

완주군, 개정안 홍보 나서… 본인이 속할 가구 · 읍면동사무소로 해외체류 신고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에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홍보에 나섰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오는 12월 3일부터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주소 신고가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제대로 두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되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 없고, 주민등록된 집에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위장전입으로 오인받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과태료 부과,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 부모 등 본인이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어 국내 주소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출국하려는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 출국해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해외체류 신고를 통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해외체류를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 체류 후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 신고를 해야한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30일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제시는 지난 30일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이건식 김제시장이 29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 점검과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천 권한대행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직원들이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유입 차단방역과 동절기 대비 종합대책 추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준비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국장들과 잦은 논의를 통해 현안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온정으로 퍼져

참여 주민들, 수익금 기부 · 공동체 행사 종자돈으로 써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와일드푸드축제에 참여한 마을과 기관, 단체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지역공동체 행사 종자돈으로 쓰고 있다.

올해 음식판매부스에 참여한 삼례읍, 운주면, 화산면, 소양면, 고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축제수익금을 활용해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운주면 새마을부녀연합회 채미자 회장은 "축제 때 번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마을 경로회관 등 어려운 이웃과 김장김치를 나눴다"고 전했다.

축제장에서 대장간을 운영한 철수와 목수 대표 문태식씨는 100만원 상당의 강화마루(25평)를 고산면에 기증했다. 문씨는 지난해에도 책상과 수납장 10세트를 화산면에 기증했었다.

가죽공예 공동체인 '가우리'는 1111소통기금에 100만원의 수익금을 기탁했고, 추억의 먹거리 부스를 운영한 완주군생활개선연합회는 장애인시설인 운주면 베데스다의 집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김기은 가우리 대표는 "완주군을 통해 가죽공예 자격증을 취득했고 공동체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으로 성장했다"며 "축제장에서 수익을 올린만큼 지역으로 되돌려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

김제시보건소는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평가결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홍보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지난 30일 경주에서 개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분야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표창으로 김제시보건소가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수상은 심뇌혈관질환의 인지율 향상을 위해 월 2회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의 상설운영을 비롯한 비조절군을 대상으로 고당1일 캠프를 열었고, 고혈압 당뇨병의 인지율과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역을 누비며 전개한 내 혈압, 혈당 숫자알기 캠페인과 전북권역심뇌센터 전문강사를 초빙 올바른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심뇌혈관질환교육 프로그램 '골든시티,골든벨을 울려라'를 통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방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 홍보부스는 금산, 김제 5일장 및 지역행사, 직장, 복지관 등을 돌며 연95회 기초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방문건강 전문 간호사가 저소득 취약지역을 월1회 정기 방문으로 건강취약 계층의 만성질환 관리 총 619개 경로당을 돌며 방문보건센터 운영과 교육 및 공격적인 레드써클 주간 운영 등이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올해 좋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